

## \*\*근대건축물 문화재의 실내장식 수복에 관한 연구(II)

- 공장생산 커튼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Interior Restorations in the Pre-Modern Architecture(II)

- Focused on Industrial curtains -

김란기\* / Kim, Ranky

#### Abstract

This study is arranged the principles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in pre-modern architecture, presented guideline of the interior restoration in there, and attempted relative-analysis by cases of Japan in curtain of Sapporo Houheikan. The method of Original-restorations and Repairs must be preserved in materials and technologies in order to hand over the future generations. The process and method of restorations are the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as Architecture's itself.

And Restorations of industrial manufactures hold the the important position in restoration of pre-modern Architectures. Because industrial technologies are developed and forgotten in rapid. Specially, because industrial materials as curtains were apt to recognize as consumption goods, historicity in that are contained the history of fabric, industrial technologies, and relations of traditional technologies.

Conclusionally, restorations of interior materials in our country are required of ①the construction of workframe in search and restoration for original preservation, ②the conception of refaires and establishment of investigation, ③the stocking of restoration-technologies of pre-modern cultural properties of architectures, ④the recognitions of record-preservation, ⑤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 upbringing of technicians,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systems.

키워드 : 근대건축, 실내장식, 수복(修復), 공업제품, 문화재보존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실측조사와 보존수리공사에서 기록보존과 원형보존을 위한 그 실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일본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수복의 과정과 방법을 고찰하고 그 사례를 분석한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하여

1. 현행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근대문화재의 실측조사와 수리공사에 공업생산물 내장재의 조사와 수리가 기록보존과 원형복원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2. 본 연구의 전편인 (I)에서 제시한 보존원칙(2.2 (2))<sup>1)</sup>에 의하여 수리 및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3. 이와같은 보존원칙이 적용되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실측조사와 수리공사의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등의 사항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그리고 추후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재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본연구의 (I)편의 연속선상에서 실내장식재 중 공업제품의 수복과정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우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업제품 실내장식재 수복과정과 방법을 분석하고 그 사례로써 일본의 삿포로시(札幌市) 호헤이칸(豊平館)의 커튼 수복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 수리(실측)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

\* 정회원,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연구원

\*\* 본 연구는 Brain Korea 21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김란기, 근대건축물 문화재의 실내장식 수복에 관한 연구(II), 실내디자인학회, 200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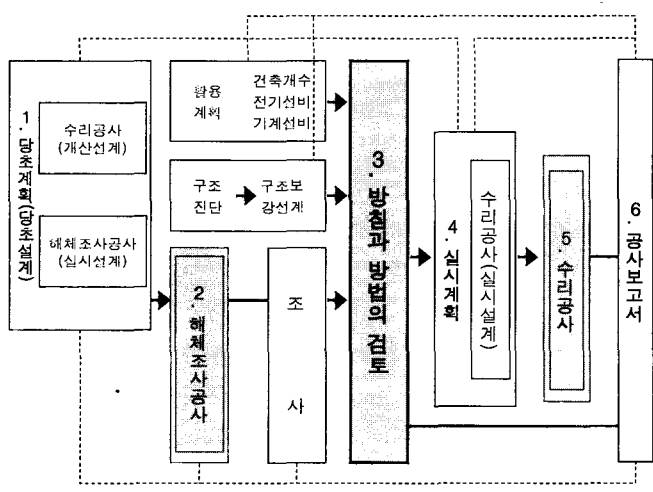
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의 범위로 (1)편에서 다루었던 일본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며, 사례분석은 호헤이칸의 커튼의 수복과정만을 대표적으로 선택하여 시도한다<sup>2)</sup>.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서울역사, 명동성당, 약현성당을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2. 근대문화재 건조물의 공업제품 실내장식재 수복의 과정과 방법

### 2.1. 일반적인 수복과정과 방법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실측조사와 수리공사의 과정과 방법을 사례분석과 비교할 수 있는 체계화된 '과정과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 수복과정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표 1 참조).



<표 1> 일본에서 수복의 단계와 구성(木村 勉, 金出ミチル, 修復, 理工學社, 東京, 2001, p.53)

#### (1) 기본조사

기본조사의 항목에는 기초적조사, 파손조사, 구조진단조사, 역사적 조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건축물의 관찰, 문헌사료의 수집, 고사진의 수집, 청취·채록, 유사사례의 관찰, 실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개괄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본조사에 속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조사는 그때 그때의 목적에 따라 조사가 행해지나 이것들이 혼합되어 행해지기도 한다<sup>3)</sup>.

2) 커튼만을 사례로 든 이유는 커튼이 공업제품 실내장식재 중 그 교체 혹은 소멸,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소모품으로 인식), 양식 건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당시의 실내장식을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료가기 때문이다. 또한 직물과 그 문양, 타셀 등 부속품 등이 당시의 직물생산 역사를 밝혀주며 부속품의 제작에서도 기술사적인 발전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이와같은 명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종종 혼동되고 있

- ① 기초 조사 : 건물로부터 기본 지식을 얻고 개요를 파악함
- ② 파손 조사 : 파손의 상황을 파악해서 원인을 구명함.
- ③ 구조진단조사 : 구조진단을 위해서 방법과 대책을 구상.
- ④ 역사적 조사 : 흔적 등에서 건물의 변천을 파악.
- ⑤ 사양 조사 : 구조·의장·기법·재료를 파악.

#### 2) 건축물의 관찰

건축물의 관찰에는 사진촬영, 실측, 조서작성, 과학적 분석 등의 방법이 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진촬영

수복전과 해체중의 사진은 재촬영이 불가능한 귀중한 자료이고, 그에 의해 수복의 평가와 건축물의 가치판단에 연결된다.

##### ② 실측

건축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측조사는 건축물의 스케치를 현장수첩에 하고, 건물의 치수 등을 실측, 기입하는 작업이다.

##### ③ 조서작성(시방, 흔적, 파손, 부재의 구성)

건축물 자체를 기초로 시방을 찾아 나가게 되고, 해체하면서 모든 소견을 잡는 작업이다.

##### ④ 과학적 분석

안료의 성분이나 색채, 금속의 재질 등에 대해서 외부관찰이나 경험과 지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의해 확인한다.

#### 3) 문헌사료의 수집

수집하여 고찰하고 분류하여야 하는 직접적인 문헌 사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준공 당시

- 설계도서 : 도면·시방서·적산서·사진 등
- 사무서류 : 기안·견적·입찰·계약 등

##### ②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 영선관계 도서 : 도면·시방서·적산서·사진 등
- 수지 결산서 등

#### 4) 고사진의 수집

불특정 다수자가 소장하는 사진의 수집으로, 건축 그 자체의 촬영이 목적이 아니라라도 인물의 옆으로 비친 부분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 5) 청취·채록

청취·채록은 민속학의 유력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해 개조·개장 등에 의해 바뀐 부분의 이전의 상황을 각각 관계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다.

다. 각각의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고찰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황의 보고에 있다든지, 수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때 그때의 편의에 따라 부르게 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혼란하고, 제삼자에게는 총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 木村勉, 近代建築解体新書-修復の計書と技術, 建築修復學會, 東京, 1994 p.64.

## 6) 유사사례관찰

유사사례 관찰은 수복을 위해서 참고가 되는 다른 건축을 조사하는 것을 이른다. 後記의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약현성당의 경우 화재로 소실된 내장재의 수복에서는 이같은 방법이 일부 사용되기도 했지만 좀더 다수의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도 있었다.

## 7) 실험

실험의 종류에는 모형제작, 화학적 성분조사<sup>4)</sup> 등이 있으며 시공방법<sup>5)</sup>에서도 실험을 한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 8) 조서정리

이와같이 조사해 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조서의 서식이나 규격을 정리해 두고, 이용하는 척도, 현장 수첩의 크기, 용지, 필기도구, 분류나 표시의 통일 등을 정한다.

## (2) 해체조사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해체조사(해체 혹은 해체공사)의 단계로 들어간다. 해체에는 [반해체], [부분해체], [전면해체], [지붕해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들은 수리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리를 하게 된다. 즉 [반해체]와 [부분해체]의 경우에는 [부분수리] 혹은 [도장수리], [전면해체]의 경우에는 [전면수리], [지붕해체]의 경우에는 [지붕이기수리]에 국한하게 된다.

해체의 공정·순서는, 조사와의 균형, 건물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건물 및 재료는 충분히 양생하고,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해체부재에는 위치·방향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순위를 붙인다. 이 방법은 재질 형상 그 밖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모두 지시에 의해 행한다. 현존하는 것을 철거·해체 또는 제거할 경우, 상대에게 남는 못자국, 맞춤자국 등을 표시한다. 해체재등의 못·나사류는 원칙적으로 모두 빼낸다. 해체재등의 보관은 담당책임자를 두고 충분히 관리한다. 해체작업은 한 공정마다 진행하고 청소를 행하여, 감독원의 관찰·실측·사진촬영을 받는다. 해체작업과 조사는 병행하여 하고, 조사 때문에 작업이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부자·감리자와 협력하여 조정한다. 교체 목재의 조서작성은 반드시 해체한 장소에서 하므로, 이것에 따른 공정·순서를 계획하여야 한다<sup>6)</sup>.

## (3) 수리방침의 결정

### 1) 수리방침의 결정

4)창건시의 페인트 도장의 안료가 특정되지만, 지금까지 예가 없는 결과라면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몇 가지를 조제하여 실제로 도장하고 검사한다(삿포로의 호우해관관의 경우). 札幌市, 重要文化財 豊平館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団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東京, 1986.

5)추정에 따라 제작 방법을 시험하고, 단편과 비교하면서 본래의 제작 방법을 찾아낸다. 또, 그것들이 건조전에 천정에 붙여진 것인가, 혹은 건조 후에 붙여진 것인가, 시험을 하여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낼 수 있다(야마가타현의 현청사의 경우). 山形市, 重要文化財山形縣旧縣廳舎及ひ縣議事堂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団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京都, 1991.

6)木村 勉, 상계서. pp.57-62

수복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세워진 방침은 해체조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한다. 그 결과 상당한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는 기존부재의 존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이 되는 대응과 방법이 요구된다.

① 창건시에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 -> 창건시로 복원

② 개조의 경과가 건물이 갖는 역사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 어떤 한 시기의 개조상태로 돌아간다.

③ 현재의 양호한 상태로 활용되고 있다 -> 현상유지

### 2) 고부재와 시공의 보존

고부재와 시방의 보존은 원형보존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시공의 방법에 있어서도 같은 종류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기술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양질의 시공을 해야 한다. 시방의 보존도 부재의 보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 (4) 수리의 시행

수리공사에서 그 내용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한다.

② 정해진 방침에 따라 현상태로 하든가, 창건시 또는 그 후의 개조·증축된 모습 등 한 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한다.

③ 구조적 결함을 새롭게 보강한다.

④ 유지·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의 경우 수리 때 고부재를 얼마나 희생시키지 않고 끝낼 것인가 하는 점과, 고부재를 신부재로 이어낼 경우 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하는 균형점의 판단이 필요하다.

②의 경우는 ①의 경우와 별 다르지 않지만 완전하게 멸실된 부분의 복원을 전부 신부재료로 만들 때 얼마나 그 시대의 기법을 답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③의 구조보강은 구조진단에 의거하여 수복방침의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가 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④는 건축물의 취약점(우수막이 등)에 대해서 유지·보존의 수단을 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방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 최소의 변경으로 과잉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5) 기록의 보존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요문화재의 수리는 보존용의 도면<sup>7)</sup>과 공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다. 도면의 경우 수복의 착수로부터 실측을 시작하여 완성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이 작업은, 설계감리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대개 이것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전임의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공사보고서는 [수리공사보고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공사시에 기록된 것을 정리하여, 수복의 경과와 성과를 정확하게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sup>8)</sup>.

7)이것을 '보존도'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수복을 전후한 일반도, 상세도 등이 켄트지에 오구로 흑색 잉크하여 영구히 보존된다.

8)기록의 내용에는 조사의 조서와 자료류, 공사의 설계도서, 사무서류 등

## 22. 공업제품 실내장식재의 수복과정과 방법

근대문화재의 수복은 전통적인 건축물에 비해 그 실적이 적고 건축물의 변화도 급격하여 그 기술과 재료의 추적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내장의 조사와 복원
- ② 구조보강
- ③ 활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

위의 ①은 양식건축이 도입되어 그 실내장식도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근대적 재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이용된 건축시방은 수입되어 사용된지 불과 수십년 안에 사라진 것도 많고, 반대로 발전되어 초기의 시방을 잊어버린 것이 있다. 또한 근대건축에 응용된 전통적인 기술도 잊어버린 것도 있다. 더욱이 내장재가 대개 반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개수나 교체에 의해 모양이 바뀐 것들도 많다. 수복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본래의 시방이 매우 귀중하고 어떻게 수복하여야 하는가,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가가 과제로 된다.

### (1) 공업제품의 복원

근대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산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수리나 복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가능성에 앞서 수복의 근본적인 방침에 의거한 취급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공산품으로는 창호철물, 커튼직물, 도료, 벽지, 리노룸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용이하고 값싸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안한다든가, 혹은 모조품의 형태라도 값싸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복원의 의미를 생각하여야 한다. 건축에 이용된 당시의 공업제품에서 제품의 유통, 건축가의 의도, 건축주의 경제상황, 시대의 풍조, 등 다양한 배경이 탐구되어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가에 의해 선택은 달라진다.

남아있는 본래의 철물을 가능한 한 사용재로 쓰고, 바꾼 부품은 자료로써 별도로 보존하며, 보충해야 하는 부분은 외형을 나타내는 외형을 복원하고 기능은 양질의 기성제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철물을 만드는 기술이 잊혀졌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사실로 나타내야 한다<sup>9)</sup>.

### (2) 공업제품 내장재의 해체조사

#### 1) 커튼장치 떼어내기

직물은 꼬리표를 붙인 후, 접어 비닐 봉투에 넣고 보존창고에 격납한다. 커튼철물은 고정된 방법에 따라 적절한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꼬리표 순위를 붙여 공기청소 후, 개소마다 정리상자에 수납하고, 보존창고에 정리한다. 철물류는 떼어낼 때, 현재 사용된 못자국·나사구멍 등에는 메뚜기장(木柱)(楊子 등 이용)을 채운다. 덧집 속에 커튼타셀 밴드가 잔존하므로 수납 정리한다.

#### 2) 바닥마감제 떼어내기

카펫의 번호붙이기는, 꼬리표로 하고 단단히 말아서, P타일 및 바탕 배너어판은 일부 보존재에 도료로 기록하고 보관창고에 격납한다, 그 외는 폐기한다.

#### 3) 등기구류 떼어내기

모든 경우의 손상을 고려하여 양생은 엄중하게 하고,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떼어내는 작업에 있어서, 중심장식, 천정, 주름 상자, 벽, 지붕속, 그 외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번호붙이기는 꼬리표로 하고, 암·샤프트(arm shaft)의 방향 등도 표시한다. 器具는 목대(木台)까지 잡아 떼다. 모든 부재는 공기로 청소한다.

## 3. 공업제품 내장재의 조사와 수리의 실제와 평가

### 3.1. 샤프로시 호헤이칸의 커튼 수복과정 분석

상기와 같은 근대문화재 건축물의 공업제품 내장재의 수리복원의 실례는 본 연구의 (I)에서 든 사례 중 샤프로시의 호헤이칸 커튼 수복과정이다<sup>10)</sup>. 본질의 수복과정의 분석은 2장에서 제시한 수복과정에 합치하는가를 검토할 때, <표 1>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표 2>와 같은 조사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및 <표 2> 참조). 또한 <표 1>의 수리방법의 검토와 수리공사의 단계에 대해서는 본 질의 수리방법의 검토와 시공에서 기술한다.

#### (1) 조사과정 분석

기본 및 해체조사를 취합하여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커튼박스

페인트 도장을 벗긴 후의 관찰에 의해, 재질·가공·창의 마감에서 모두 당초재임이 밝혀졌다. 수리전 현황에서 그것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고사전에 의해 본래에는 그것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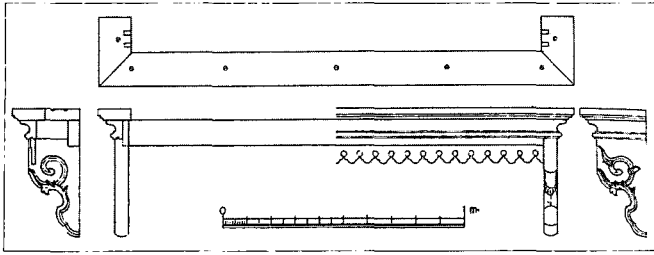
##### 2) 달개장치

커튼박스의 관찰에서 상단 양쪽 옆에 달개장치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당초]는 양쪽 옆 목부에 반원 단면의 홈을 조각하고

방대한 것들이고 이것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추출하여 알기 쉽게 집필하는가가 요점이 된다.

9)이런 물품이 자료가 되어 역사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복은 그 가치관을 선명히 하여 어디까지 복원이고, 어디가 아닌가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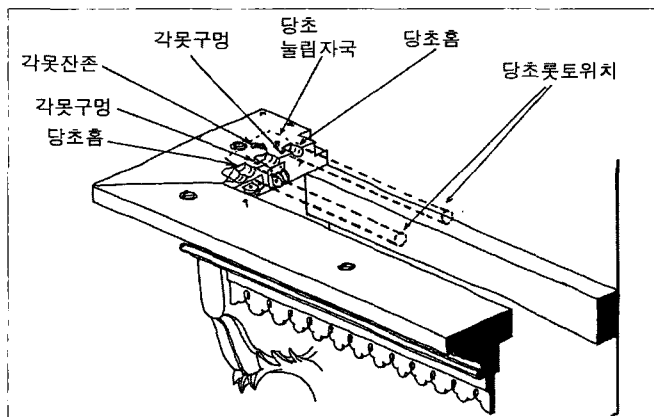
10)이는 샤프로 호헤이칸이 1880년 창건되어 1958년 해체이축하였으며 1982-1986년 수리복원한 바 소모품으로 인식되는 커튼을 건축물의 변천과 이축과정을 경과하면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내장재로써 그것의 복원을 추구하는 사례는 적절한 연구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



<그림 1> 커튼박스의 구성(중요문화재 풍평관보존수리공사보고서, 재단법인 문화재건조물보존기술협회, 동경, 1986, p.195.)

그 곳에 룯트를 끼우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눌러 붙이고 있었다. 이것을 [당초]<sup>11)</sup>로 보는 것은 누름 각뿔이 이용되고 홈이 정연하게 2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홈의 지름이 가는 것으로부터 룯트는 금속의 봉 또는 관으로 보여지고 직물과 레이스의 이중 커튼이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방에 따라서 커튼 박스측 판자의 맞담면에 갈라놓는 끈의 도르래를 설치한 것이 있었다. 이 때의 문헌<sup>12)</sup>에도, 커튼을 장치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고 행차<sup>13)</sup>시에 새롭게 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달개장치의 세부(중요문화재 풍평관보존수리공사보고서, 재단법인 문화재건조물보존기술협회, 동경, 1986 p.196.)

### 3) 커튼직물

수리전 현황에서는 과거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사진·문헌·청취물 등의 조사에 의하게 된다. 입수한 고사진에 커튼이 보이는데, 창건초기에는 없었고, 대정11년(1922년) 행차시의 거실에 있었고, 쇼와 초기부터는 한 실을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홀(廣間)이나 會喰(회식)소·안홀 등 주요실로 한정되었다. 그것들은 주로 여학교의 회식이나, 그 지역의 명사의 결혼 피로연 등의 기념 사진에서 볼 수 있었다.

11)[당초]는 창건시(최초 준공시)의 건축물을 지칭.

12)鶴駕奉迎誌, 명치44년(1911년), 북해도청, 재인용. 札幌市, 상계서, p.225.

13)이 건축물에 일왕(천황)과 그의 왕세자(황태자)가 행차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때에 그에 맞추어 건축물의 일부를 개조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 명치14년(1881년) 일왕이 행차하여 묵었다. 이 때에 테크바닥을 수리하고 실내 바닥마감재를 교체했다. 명치44년(1911년)왕세자가 행차하여 숙박하였다. 이 때에는 후면 통로복도를 증축하고 어좌소들레를 개조하였으며, 그 때 쫓까지 지붕을 아연판으로 덮었다. 대정 11년(1922년)왕세자가 행차하여 화장실을 고쳤다. 札幌市, 상계서, p.57

문헌<sup>14)</sup>에서는 [당초]의 모양은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것이 없고, 메이지44년(1911년)행차시의 문헌<sup>15)</sup>에 거실 둘레의 방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취 및 채록에서는, 초기상태는 알 수 없었지만, 대정11년(1922년) 이후에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고, 「커튼은 최초의 것을 소중히 이용해 왔다」는 것과 「중요 행사 등에만 거는 것으로 하여 戰前<sup>16)</sup>까지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라는 전언이 있었다.

고사진에 의하면, 커튼 박스 앞 판자아래에, 끈을 막대 모양에 말아서 연속적으로 늘어뜨린 「앞 장식」이 붙어 있다. 우선, 이것이 [당초] 것인지 확인을 시도했다.

이것을 걸어 매달기 위해, 커튼 박스의 앞판 뒤편에는 못이 쳐져 있고, 많은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모두 둥근못이고 각뿔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로부터, 앞 장식이 꽤 옛부터 있었고, 몇 번정도 고쳐 거는 것은 있었던 것으로, 당초(각뿔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었다.

직물은, 무늬가 「모란 당초(牡丹唐草)」로, 일본의 전통 문양이라고 보여진다. 게다가 그 중에는 다른 작은 문양이 2종이 있고, 그것들은 같은 전통문양 「보물류」 중의 「丁字(정자)」와 「七寶」였다. 그 무늬를 고사진에 찍힌 창 의 치수와 의 비례에 의해 재구성하였다.

호우헤이칸과 동시에 시공된 같은 開拓使의 건물 「물산매팔소(物産買捌所)<sup>17)</sup>의 경우는, 설계자 Conder<sup>18)</sup>에게 커튼 등에 대해서 요망하는 형태로 개척사로부터 서간이 온 것 같고, 그 초고가 남아 있다.

그 편지에는 가능한 한 국산품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교토 니시진(西陣)<sup>19)</sup>에서 짠 것을 희망하며, 그림이나 모형으로 상세

14)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문헌에는 [東京文移錄], [豊平館커튼 掛入費調書]가 있는데 그 내역으로 [豊平館커튼 釣方諸職人足御入費書], [豊平館커튼 諸物品代價], [豊平館 用下被渡品代價仕出] 등이 있다. 札幌市, 상계서. p.197

15)鶴駕奉迎誌. 명치44년(1911년).

16)제2차 세계대전

17)이 건축물은 홋카이도의 개척정영을 위해서 설치한 조직이 開拓使로 그 東京출장소의 중요한 시설. 조직아 콘더(Josiah Conder)에 의해 설계되어 1881년(명치14)에 東京 築地에 벽돌조 2층으로 준공되었다.

18)조지아 콘더(Josiah Conder). 일본에 영구 이주한 영국출신의 건축가. 그는 1852년 영국 런던의 케싱턴에서 태어나서 건축을 공부한 후 21세에 윌리엄 바체스의 조수가 되었다. 24세에 존상을 수상하고 일본정부와 5년간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1877년 일본에 도착, 공부대학 조가학과 외국인강사가 되고 건축설계를 하기 시작했다. 27세에 그의 일본인제자 1기생을 배출했는데 유명한 다츠노 강코(辰野金吾, 한국은행설계), 카타야마 토우쿠마(片山東熊, 이준저택설계), 소네 타츄조우(曾禰達藏), 사타치 시치지로(左立七次郎)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이후 일본 건축을 지배하는 거목들이 되었다. 68세로 일본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3개의 건축을 설계하였으며 일본화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19)교토의 전통적인 양감과 모직물의 기술이 전하는 곳. 5,6세기경 대륙으로부터 도래한 秦씨의 일가가 지금의 교토부근에 살기 시작하여 그 기술을 전하였다. 아스카와 나라시대를 경유하여 헤이안시대까지 조정은 모직물기술을 전수받은 직인들을 織部司라는 役所를 조직하고 고급직

도를 요구하고 있다. 후에 Conder는 개척사 앞으로 보낸 서간에, 유럽 박래품은 지극히 선미(鮮美)하여 부적당하고 일본 고대의 직물에 이용되는 박색의 것이 어울린다는 취지를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물산매팔소의 커텐은, 일본 전통의 문양과 색채에 의해 짜여졌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호우헤이칸의 당초의 커텐직물이 고사진에서 보이는 일본풍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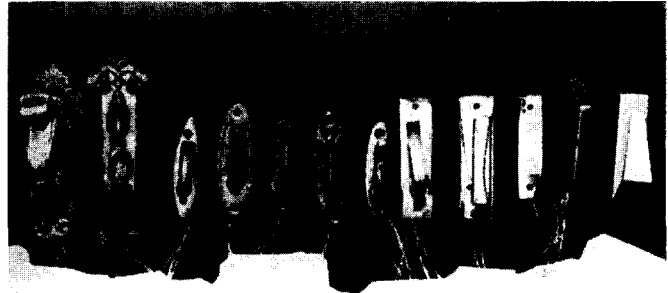
<사진 1> 고사진에 나타난 커텐의 형태(상동, p. 358)

4) 커튼 형상

수리전 모습은 길이가 짧아서 창 바로 밑에서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마루까지 늘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사진1). 그것은 고사진 한 장에 직물이 마루까지 늘어져서 번거롭기 때문인지, 위로 걷어올리는 장면이 있는 것, 당초의 직물을 모아메어 멈추는 철물(커튼 끈걸이, 닷셀) 위치가 수리전 모습보다 꽤 낮은 위치에 있고, 그 높이는 직물을 마루까지 늘어뜨린 데다가 조여매는 타당한 위치인 것 등에 의한다. 그러나, 닷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고사진에서 끈 끈이 보이는 정도로, 털실의 술 상태의 꾸밈은 보이지 않으며 그 형태는 알 수 없다.

5) 닷셀철물

수리전 모습에서, 창틀 양쪽 옆에 설치되어 있던 철물은, 앞에서 본 대로, 직물의 키에 맞추어, 묶는 위치가 높아지고, 철물도 당초 위치로부터 꽤 윗쪽으로 가 있다. 그것들을 제외하고 정리해 보면, 잡다하게 수십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사진 2). 손상되어 여러번 교환되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안에는明治 후기 혹은 大正期로부터 제품으로써 현재에도 시판되고 있는 것도 있고, 위치만이 아니라 철물 자체가 모두 후세의 제품이였다.



<사진 2> 해체되어 정리된 닷셀의 종류들(상동, p.200)

그 위치와는 별도로, 고사진에 찍혀있는 매는 높이에는, 몇 군데 오래된 철물이 남아 있었다. 닷셀을 걸기 위한 혹은 망실하고, 근년의 페인트 도장으로 목부와 함께 잘 칠해져 있었다.

물을 생산시켰다. 현재에도 교토의 上京區 上長者町에 모여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들을 제외하면 그 아래의 목부에는, 당초 마무리대로 春慶塗<sup>20)</sup>가 나타나 이 철물이 당초의 것이고, 나아가 당초 위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닷셀 철물 흔적이 없는 방에 대해서, 커텐의 존재의 유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생겨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 커텐박스 상단의 달개장치의 흔적은 누름을 멈추는 각못의 유무에 따라 그 분포는 닷셀 철물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 고사진에서는, 대정11년의 정면 외관의 창 모두에 레이스 커텐이 보이고 이 즈음에는 모두 간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부 사진에서는 대정7년(1918년)의 것에 벽에 설치된 철물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높이는 당초보다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후세에 설치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상의 결과는, 흔적이 없는 방의 커텐의 당초의 존재의 가능성을 낮게 하고, 후에 설치되었을 것을 시사한다.

6) 블라인드

前記 메이지44년(1911) 행차에 관계한 2층의 객실 5실의 창에서 양 세로창틀 윗쪽에는 롤 스크린식 블라인드의 고정 철물의 흔적이 인정된다. 메이지44년의 「鶴駕奉迎誌」에도 「日覆」을 설치한 기술이 있고, 대정11년의 외관 사진에서는, 창에 블라인드 당김줄이 보인다. 이러한 것에서, 행차를 계기로서 그러한 실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멸실된 시기는 불명확한다.

7) 총괄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호우헤이칸의 커텐은 다음과 같은 경과가 밝혀진다.

수리전 상태의 달대장치 및 커텐은 모두 이축 후의 일이고, 커텐 박스만이 당초의 것이었다.

당초의 장치는, 커텐 박스 양쪽 옆 상단에 반원형태의 홈을 조각하고, 2조의 룻트(봉)를 끼우고, 눌러 고정시켜서 레이스와 직물을 달아메고 있었다. 아마 [當初]로 보여지지만, 직물은 「牡丹·唐草」 문양으로, 가장자리 장식은 끈 끈이고, 일본식의 의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전체 형상은, 닷셀 철물의 높이가 밝혀진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마루까지 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2) 수리방법의 검토와 시공

위와같은 조사에 의해 호우헤이칸의 커텐은, 특히 메이지 초기 서양식 건축의 본격적 실내장식을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료임을 알았다. 게다가 달리 현존하는 예나 복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의 모습을 구현해 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 문제점과 시공대

20)투명옷칠, 바탕을 치자나무, 雄黃의 황색으로, 혹은 鐵丹, 洋紅으로 착색하고 투명하게 옷칠하여 도막을 통해서 나무결을 나타내게 하는 것.

안이 있었다.

1) 문제점

○ 대체로는 밝혀졌지만, 세세한 점에서는 아직 불분명한 것도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복원이라고 하더라도, 커튼직물의 수명은 짧다. 그래도 건물의 이용도가 높고, 각 실은 빈번하게 이용되므로 직물의 정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오래된 직물의 단편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물의 세세한 사양은 복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 주요실 이외의 커튼직물은 불명확해서, 그것들은 향후의 활용의 편의상, 방 나누기를 하지 않기도 하고, 복원해도 극히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방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2) 시공대안

이것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방적의 조성은 불분명하기 때문에(고사진에서는 주자(朱子)짜기으로도, 무늬 비로드로도 보인다) 당시 입수하기 쉬웠던 전통적인 주자(朱子)짜기로 한다.

- 색감도 불분명하므로, 당시의 풍속화나 회화에 많이 보여지는, 적색계를 채용한다.

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 미리 견본 직물로부터, 그 지방의 적색을 결정하고, 일본식의 빨감을 선택한다.

② 무늬는 배색의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現치수 圖面에 다양한 색을 발라 샘플을 만든다.

③ 그 중 후보를 몇 점 선택한다.

④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선택한 몇 점을 시험 직조하고, 그 때 직조방법도 결정한다.

⑤ 짜여진 시험직조를 실내에 달아매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 닷셀은 형식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한다. 적어도 수법 등은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메이커에 보존되어 있는 오래된 닷셀을 참고로 한다.

- 커튼 박스내의 매달기장치를 복구한다. 그러나 룯토(봉)의 재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성제의 황동관으로 한다. 커튼 링도 알 수 없으므로 수명이 긴 우수한 기성품으로 한다.

- 닷셀 철물은 완전 복원한다. 사용되고 있던 것은 클리닝하여 혹은 보충해 채용한다.

- 커튼의 길이는, 당초를 모방하여 마루까지 늘어뜨린다. 실용적이지 않지만, 의상상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레이스는, 고사진에서는 무늬넣기이지만,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불분명하므로, 더우기 사진으로부터 상세한 복원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 기성품중에서 닳은 것을 선택하고, ㉡ 전혀 생각하지 않고 無地로 한다. 이 2안을 내놓고 검토한 결과, 무지를 선택했다.

- 주요실 이외의 방에는, 그 방의 용도에 어울린 기성품을 이용한다. 복원된 방과 경합하거나 오해를 주지 않게, 동계 색의 무지로 무난한 것을 선택한다. 닷셀 철물이 붙쳐진 흔적이 창틀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용되어 온 중고품을 선택하고, 새롭게, 창틀 측면에 설치한다.

- 새로 만든 것에는 분명하게 후세에 作製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에 연호를 표시한다. 철물에는 음각, 직물에는 라벨을 붙인다.

3.2. 우리나라의 사례에 나타난 현황

연구방법 및 범위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근대건축 문화재의 내장재에 대한 조사 및 수리의 인식이 미약하다.

2) '수리21)'라는 개념이 문화재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물의 수리'개념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어서 그 실사에서 원형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근대문화재 수리에 대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내장재 보존·수리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4) 나아가 조사 및 수리공사가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측면의 실시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발주방법, 조사과정 및 방법의 위축, 보고서작성의 인식부족 등에 의해 정밀한 작업이 될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5) 우리나라의 사례로 든 근대건축물의 조사와 수리에 나타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서울역사22)

공업제품의 내장재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조사 및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고 사진들에는 커튼, 상들리에, 벽등, 천장물등, 벽의 마감재(회벽, 타일붙임, 화강석과 인조석 마감, 대리석, 티크 무늬목), 바닥마감재(화강석판재, 타일, 리그노이드) 등의 공업제품의 내장재가 보이나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기록이 없다.

② 명동성당23)

이 건축물의 실측조사보고서에는 공업제품에 해당하는 내장재에 관한 조사기록은 없다. 다만 성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본당예배실의 주제대, 부제대, 목조제대 등 3개의 제대, 복자제대, 지하성당의 목조제대, 부제대 등에 대한 간략한 조사만 있고, 주요가구로써 주교좌 및 장례틀, 성직좌 및 장례틀, 성직자 장식병풍, 제의실 준비대, 독서대, 단집

21)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는 말을 오히려 많이 쓰고 있는데 '수리'보다는 좀 더 폭넓은 문화재 전반의 보존·관리·유지에 관련되어 쓰고 있다. 수리는 보고서 등에서 보다 정교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2)문화재청, 서울역사정밀실측보고서, 2004. 4, pp.128-148  
23)문화재청, 명동성당실측조사보고서, 2002. 10, pp.291-312.

등의 기록과, 성화, 성상 등의 미술품, 기타 영성체 난간, 성수반, 파이프오르간, 종 등의 기능성 설치품에 대한 것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③ 약현성당<sup>24)</sup>

약현성당은 1998년 2월 11일 화재로 성당내부 및 지붕, 그리고 종탑이 전소되었다. 이 건물의 정밀실측 및 수리보고서에는 기존의 천장이 회반죽, 몰당, 도장 등으로 마감되었음을 기록할 뿐 그 역사나 기법 및 시방 등에 대해서는 조사 및 기록이 없다. 특히 화재로 소실된 부분에 대한 기록조사, 채록정취조사, 기록조사 등 추정조사가 없다.

벽마감재는 기존의 회반죽 마감을 노출조적조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회반죽을 거둬냈을 때 그 상태가 정교한 몰당 등에 의해서 노출 조적쌓기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바닥은 기존이 콘크리트 슬래브 위 인조석 물갈기였으나 목조장마루구조로 복원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창건시의 것이 어떤 마루구조였는지, 그 기법, 사양, 목재의 종류, 재질 등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이 추정에 의하여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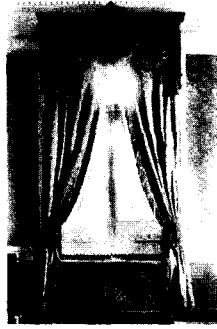
5) 건물자체에 대한 인문 사회적 역사나 배경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일 재료나 부재에 대한 역사와 기술, 생산 과정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인문사회적인 부분은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재료(자재), 기법, 시방 등에 대한 역사와 생산 배경은 깊은 조사와 기록이 필수적이어야 함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다.

3.3. 수복과정 평가 및 문제제기

1) 본 연구에 인용한 일본의 사례는 수복과정과 방법에서 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2) 일본의 사례에 나타난 수리의 방법의 검토와 시공에서는 우선 조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시공대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추정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3) <표 2>의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바와같이 한국에서도 조사단계의 철저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복원대안 마련, 추정복원의 판단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



<사진 3> 서울역사 귀빈실의 당초 커튼(출처: 경성정차장신축기념사진첩. 1925. 10. 서울역사 정밀실측보고서. 2004. 4. 재인용.)

<표 2> 조사과정 평가 및 문제제기

| 조사과정    | 일본의 사례   | 한국의 사례                                  | 문제제기(한국사례)                                  |
|---------|--|---|---|
| 고사진의 활용 | 이미 없어진 커튼박스의 형태, 커튼의 형태, 커튼 직물의 길이, 타셀의 흔적, 블라인드의 발견 등을 밝혀낼 수 있었다. | 조사보고서에 사진만 제시(서울역)                      | 고사진의 수집 철저 및 수복시 활용필요                       |
| 문헌류 수집  | 몇 차례의 행차시의 기록, 서간에 의하여 커튼의 문양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 거의 행해지지 못함.(모든 사례)                      | 약현성당의 경우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특히 문헌류의 활용이 요구됨.       |
| 흔적조사    | 달개장치 구조, 타셀의 구조, 종류, 등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 상동                                      | 약현성당의 경우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흔적조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실측조사    | 조사방법에 근거를 제공하는 철저함으로 원형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철저함의 부족 및 구조적으로 철저한 실측을 저해받고 있다.(모든 사례) | 모든 사례에서 불충분하므로 현장수첩을 이용, 현장에서 정리하는 체제가 필요함. |
| 유사사례 수집 | 유사사례를 찾아내어 비교하는 것은 동시기 지어진 다른 건축물에서 그 유사사례를 찾아 원형을 추정하였다.          | 활성화되지 못함.(모든 사례)                        | 약현성당의 경우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사례 수집이 요구됨.    |
| 과학적 실험  | 고사진에 찍힌 창의 치수와 비례하여 무늬의 종류와 크기를 밝혀내고 있다.                           | 상동                                      | 모든 사례에서 미흡                                  |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조사 및 수복과정의 틀이 마련되어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대문화재 실내장식재 수복의 효율적인 방안을 탐구하는 연구로서 서론에서 이 연구의 목표로써 3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호헤이칸의 커튼 수복과정분석은 이 건물의 이력에서 볼 때 창건시의 커튼을 수복하는 의미에서 연구대상으로 매우 적절한 필요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근대문화재 실내장식재 수복에서 그 조사와 복원과정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의 사례- 호헤이칸의 커튼 복원- 를 분석·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보고서 사례를 분석하여 그 평가와 문제제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사 및 수복은 그 과정과 방법을 철저하게 거쳐 원형복원을 구현하여야 하고, 추정복원, 혹은 판단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① 조사 및 수리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그 과정의 틀 구축.
- ② 문화재 '수리'의 개념 및 철저한 고증의 확립
- ③ 전통건축과는 다른, 근대문화재 수복기술의 축적
- ④ 제도적 개선, 기술자육성, 이론적 체계 확립
- ⑤ 보고서도 기록보존으로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발주방식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4)천주교서울대교구 중립동(약현)성당. 약현성당 정밀실측 및 수리보고서. 2004. 2. pp.91-97.



## 참고문헌

- 1.鈴木博之, 現代의 建築保存論, 王國社, 東京, 2001
- 2.三船康道 外,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學芸出版社, 京都, 1999
- 3.大河直躬, 歴史的遺産の保存 活用, 學芸出版社, 京都, 1997
- 4.新建築學大系編輯委員會(伊藤延男 外), 新建築學大系50 歴史的建造物の保存, 彰國社, 東京, 1999
- 5.木村 勉, 近代建築解体新書-修復の計畫と技術, 建築修復學會, 東京, 1994
- 6.木村 勉, 金出ミチル, 修復, 理工學社, 東京, 2001
- 7.鈴木 淳, 工部省とその時代, 山川出版社, 東京. 2002.
- 8.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上)-幕府 明治篇, 岩波書店, 東京. 1993
- 9.太田博太郎, 建築史の先達たち, 彰國社, 東京. 昭和58年,
- 10.日本建築學會,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丸善株式會社, 東京. 昭和47年,
- 11.札幌市, 重要文化財 豊平館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団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東京, 1986.
- 12.函館市, 重要文化財函館區公會堂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団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東京, 1983.
- 13.山形市, 重要文化財山形縣旧縣廳舎及び縣議事堂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団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京都, 1991.
- 14.奈良文化財研究所, 地域文化財の保存修復の考え方と方法, 奈良文化財研究所, 2000. 3.

<접수 : 2004. 12. 31>